

# ‘이화인’ 총회, 350여 명 뉴저지서 모인다

**이화여자대 북미주 총동창회  
10월 26~29일 티넥 매리엇  
김혜숙 신임 총장 등도 참석**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의 총회가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티넥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다.

김혜숙 이대 총장이 참석하며 피플(PEOPLE)지 편집장을 지낸 한인 2세 여성 박진이(미국 이름 지니 박)씨가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27일 총회 홍보를 위해 본사를 방문한 박영숙 북미주지회 연합회장은 “이화인만의 특별한 긍정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총회를 뉴욕에서 열게 돼 기쁘다”며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많은

이화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강혜영 부회장은 “총회는 미주 지역 동창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교에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모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 프로젝트에 미주 동창들이 어떠한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새로 선출된 총장과 함께 이화가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김혜숙 총장과 함께 ‘라이트닝 더 퓨터(Lighten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열리는 뉴욕 총회는 여성·소수계라는 이중 약점을 딛고 피플지 편집장을 역임한 박진이씨의 기조 연설, 이화인들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줄 퍼포먼스, 이화여대국제제단의

모금 내역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혜숙 총장은 총회에 앞서 미주지역 동창들에게 보낸 인사말에서 “미주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이화 동창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동창회 활동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유학생으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화 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컴퓨터를 샀던 경험이 있다”며 “미주지역 동창 여러분을 직접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총회에는 뉴욕지회에서 200여 명,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 각 지회에서 150여 명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대동창회 뉴욕지부는 매해 학생 2명과 대학원생 1명 등 총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부생은



오는 10월 26~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홍보를 위해 뉴욕지회 관계자들이 27일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강혜영 부회장, 박영숙 회장, 유덕향 이사장, 류은주 총회준비부위원장.

이대 출신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뉴욕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생에게는 1500달러,

대학원생에게는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www.kparen-tusa.com/ewha\\_alum\\_ny](http://www.kparen-tusa.com/ewha_alum_ny) 최수진 기자



**브루클린뮤지엄 코리안갤러리 확장** 브루클린뮤지엄 내에 설치된 코리안아트갤러리가 확장됐다.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는 27일 회원 50명과 함께 브루클린뮤지엄 코리안아트갤러리를 투어했다. 이 갤러리는 기존보다 규모가 4배로 커졌다. 뮤지엄 아시안미술 담당 조앤 커민스 박사(가운데)와 로버트 툴리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장(커민스 박사 뒤)이 회원들과 함께했다.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제공]

## 훈민정음 반포 571돌 기념 한글날 행사

**가훈 붓글씨 선사 등 풍성  
10월 9일 뉴욕한인회관**

훈민정음 반포 571돌을 기념하는 한글날 기념행사가 오는 10월 9일 뉴욕한인회관(149 웨스트 24스트리트 6층)에서 열린다.

미주한국어재단과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뉴욕한인회가 함께 하는 이번 한글날 기념행사에서는 참가자의 이름과 가훈을 붓글씨로 써 선사하며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을 탁본할 수 있는 체험기회도 마련된다.

또한 한국어 SAT II 시험과 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이 이어진다. ‘훈민정음 반포식’ 재연 순서와 한글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재외동포의 다짐을 담은 선언문 낭독도 할 예정이다.

한글날 기념행사에 앞서 한글에 관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춘 참가자들에게는 행사장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다. 퀴즈 문항은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인가?” “세종대왕은 모두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한글은 모두 몇자인가?” 등 2개다. 정답은 미주한국어재단(KLF·38 West 32St, room 1112, New York, NY 10001)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kschoeny@naver.com)로도 참여할 수 있다.

주최 측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문자이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 많은 한인 동포의 참여를 부탁했다. 문의는 최경선 준비위원 646-312-9415.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Pinnacle Capital** 피나클 캐피탈 SINCE 2000

**빠르고 정확한 Service**

- 대형상용건물 융자, 재융자, Cash out (MAXIMUM LTV 최저이자) 개인 인컴 아닌 건물 인컴 기준으로 융자도 가능
- SBA Loan (상업융자, 가게구입, 운영자금 융자)
- 1-4 Family 주택 모기지
- 콘도, 코오프 모기지
- 투자용 주택
- Refinance
- Low 인컴 융자 가능 NY, NJ (65% LTV)
- Home Equity Line, LTV 90% 가능 (미국 전지역 가능)
- Business 구입융자
- 외국인 모기지 (소셜 없어도 주택 + 상업용 건물 융자 가능)
- Business Line of Credit (빠른 결과)
- Personal 융자 (소득의 융자를 신용으로만 좋은 고정 이자와 함께 제공)
- 크레딧 교정 (\$250 부터 시작, 오랜경험)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전문가가 필요합니다**

**New Jersey**  
530 Main Street Suite 204, Fort Lee, NJ 07024  
Tel: 201.242.8787 Fax: 201.242.9404

**New York**  
414 West 45th St. Suite 3, New York, NY 10036  
Tel: 646.856.7597

당신의 빚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까?

# 때로는 파산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집과 사업체를 그대로 지키면서 16만불의 빚을 전부 없앨수 있었습니다. 파산하고 1년 후에 크레딧 스코어는 700 이상으로 다시 올랐구요."

- E.K.J.

"더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파산 진작에 할결, 하는 생각이 듭니다."

- T.G.L.

"집 경매 들어가기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산신청으로 모든 크레딧카드 빚을 없앴죠. 그 후로 대출조건 조정 승인이 났고 저의 집을 지킬수가 있었습니다."

- Y.P.

**SHIN & JUNG LLP**  
Attorneys at Law (admitted in NY & NJ)

**NEW JERSEY OFFICE**  
2400 LEMOINE AVE #204  
FORT LEE, NJ 07024  
TEL: (201)482.8095

**NEW YORK OFFICE**  
42-40 BELL BLVD, SUITE 402B  
BAYSIDE, NY 11361  
TEL: (929)224.2044